

## 5.18민주운동 40주년 특집

## 5.18민주운동 40주년 특집

## 5.18민주운동 40주년 사진 르포



1. 5월 시민행진  
5월 시민행진에서 열사들의 얼굴을 딴 인형과 참가자들이 행진을 하고 있다.

2. 금남로  
금남로를 비롯한 광주 시내에는 5.18민주운동을 기념하는 현수막과 포스터들이 가득 걸려 있다.

3. 5.18민주운동 40주년 기념식  
코로나19 사태로 기념식 참여가 제한돼 거리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기념식을 보고 있다.

4. 대인시장  
시민들에게 주먹밥과 생필품을 제공했던 5.18민주운동 당시를 뚜렷하게 기억하는 대인시장 상인들.

5. 전일빌딩  
폭력진압 증거인 탄흔이 남아 있는 전일빌딩은 5.18민주운동을 기념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 마흔 번째 5.18, 마흔 번째 행진곡

김지원 기자 kkw90327@khu.ac.kr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박혜림 기자 apricot12@khu.ac.kr

#. 5.18민주운동 40주년을 맞아 대학주보는 광주를 찾아 특별취재를 진행했다. 지면에 실리지 않은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대학주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5.18민주운동 40주년을 맞은 올해 5월, 광주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많은 행사가 열렸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확산 예방을 위해 규모가 축소되거나 진행 계획이 변경되기도 했지만 5.18의 의미를 되새기고 학생들을 기리는 마음만은 다르지 않았다.

5월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정 씨는 “운전자가 총에 맞아 조종할 사람이나 없어진 차가 방향을 잃고 달려가면서 말 그대로 아수리장이 벌어졌다”고 회상했다. 정 씨는 “시위대를 위해 시장 상인들끼리 돈을 모아 뺨과 우유 등 식량을 사서 나눠주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 방금 전에 나지가며 뺨했던 학생들이 쓰러져 있었다”면서 “지금은 돌아가고 심지어 안전한 시장 할머니들도 다들 나서서 쓰기는 학생들을 감춰주곤 했다”고 말했다.

1980년 조선대 신입생이었던 임석(60) 씨는 “데모하며 쓰기고 뛰어다닐 때 길에서 다가와 물 담근 주전자를 내밀던 분들이 아직도 많이 생각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도시 곳곳에 계엄군이 휘두르는 폭력과 그로 인한 혼란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저마다 다른 삶을 살던 광주 시민들은 차운 모두가 모두의 동지가 돼 갔다. 서로 기대고, 막아주고, 일으켜 세워주었던 동지들 가운데 누군가는 이제는 아무런 말이 없이 영원 속에 누워 있다. 누군가는 흐릿하게나마 그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기억하고 그 날을 잊지 않으면서 마흔 번째 5월을 살아가고 있었다.

##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올해의 5.18민주운동 기념식은 국립 5.18민주묘지가 아닌 5.18민주광장에서 거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희생자 유족들을 비롯한 400여 명의 제한된 인원이 참석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늘 정신은”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희망이 탄인의 고통에 응답하며 만들어진 것이다”라며 “광주 시민들의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과 나눔이 계엄군의 압도적 무력에 맞설 수 있었던 힘이었다”고 말했다.

정범수(74) 씨가 처음 들려준 것은 도청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정 씨는 “운전자가 총에 맞아 조종할 사람이나 없어진 차가 방향을 잃고 달려가면서 말 그대로 아수리장이 벌어졌다”고 회상했다. 정 씨는 “시위대를 위해 시장 상인들끼리 돈을 모아 뺨과 우유 등 식량을 사서 나눠주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 방금 전에 나지가며 뺨했던 학생들이 쓰러져 있었다”면서 “지금은 돌아가고 심지어 안전한 시장 할머니들도 다들 나서서 쓰기는 학생들을 감춰주곤 했다”고 말했다.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무장 헬기의 의한 기총 사격이 있다고 증언한 고조비오 신부를 “정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공격했다. 전 씨는 조선부에 대한 사자명에 훼손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 열린 1심 재판에 의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복권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다. 80년 광주에서 잠시 좌절된 민주화를 향한 열망은 87년 6월 민주행진으로 이어져 결실을 맺었다. 5.18광국이 종식된 뒤인 1988년 국회에 “5.18광주민주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당시 광주의 진실이 처음 전국에 공공연히 알려졌다. 문민정부 시기인 1994년 12월에는 5.18민주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광주 시내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불꽃 부조가 새겨진 동근 석조물을 발견할 수 있다. 그곳이 5.18 민주운동 사적지임을 알리는 표지석이다. 술한 음해와 왜곡에도 광주의 ‘산천’은 진실을 품고 방문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5.18에 관해 묻는 질문에 많은 시민들은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사실의 조각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올해 활동을 개시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의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서로 엇갈리는 대답을 들려주었다. 이재환(63) 씨는 “이번에는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고 본다”면서 “남아있는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난(65) 씨는 “북한이 사주한 폭동”이라고 주장해 온 극우는 쪽 지만원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았지만 올해 5월 18일에 현충원을 찾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최근에는 극우 유튜버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여전히 만연해 있는 5.18에 대한 왜곡과 사실 부정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5.18을 ‘북한이 사주한 폭동’이라고 주장해 온 극우는 쪽 지만원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1심 판결을 받았지만 올해 5월 18일에 현충원을 찾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최근에는 극우 유튜버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은 “너무 오래 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다(justice too long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말을 남겼다. 진상규명위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유보적인, 심지어 부정적인 반응은 지난 40년간 지속된 5.18에 대한 왜곡과 부정, 미진한 진실 규명이 그 자체로 이미 깊은 상처로 남았음을 보여준다. 이 상처는 비단 광주 시민들만의 상처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정의와 평등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임 씨는 “아학도 학생 운동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당시 아학 활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로 아학 활동을 통해 정치사회적 개혁 과정은 민중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또 “아학에서는 가르치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배운다는 의미에서 교사가 아닌 ‘강학’이라 불렸다”며 “시민들에게 민주화운동 현장을 알려 조직적 참여를 독려하기

‘현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신규부 주요 인사들을 반란 및 내란에 관련된 혐의로 처벌하고 이어 1997년, 5월 18일을 5.18 민주운동 기념일로 지정했다. 뿐만 아니라 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복권, 국립 5.18민주묘지 조성 등도 이뤄졌다.

그러나 숙제는 아직 남아있다. 진상 규명위는 근거 법률에 따라 5.18 당시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사망, 상해, 실종, 암매장 사건 규명에 나선다. 그에 더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과 최초 발포 및 집단발포와 계엄군 헬기 사격의 책임자와 경위, 행방불명자와 구체적인 규모 및 소재, 학살지와 암매장지의 소재 파악과 유해 수습을 위한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 “내게 대학생 친구라도 한 사람 있다면…”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의 일기에 등장하는 구절이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약간 시간대 교육을 제공하는 ‘약간 학교’의 출입 아니라 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복권, 국립 5.18민주묘지 조성 등도 이뤄졌다.

그러나 숙제는 아직 남아있다. 진상 규명위는 근거 법률에 따라 5.18 당시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사망, 상해, 실종, 암매장 사건 규명에 나선다. 그에 더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사건과 최초 발포 및 집단발포와 계엄군 헬기 사격의 책임자와 경위, 행방불명자와 구체적인 규모 및 소재, 학살지와 암매장지의 소재 파악과 유해 수습을 위한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학에서 노동자들은 정치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조보적인 내용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노동자와 처한 열악한 노동 현장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야학이 학문과 현실, 학생과 노동자 사이의 공백을 메꿔주고 있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임 씨는 활동 당시를 “학교를 다닐 때는 물론이고 스스로 방학도 반납하며 야학에 열중했던 고된 일상이었다”고 회상했다. 낮에는 강학 확보와 학생 모집, 교재와 학사운영 마련에 힘쓰고 야간에는 수업에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또 수업뿐 아니라 토론과 학생들과의 만남, 그리고 정치·사회·역사에 대한 공부도 함께 수행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활동의 고된보다 야학에 대한 공안 당국의 탄압이 더 아팠다”며 “공안을 대변하는 학교로부터 야학을 폐쇄하라는 유형무형의 압박이 계속됐고 사찰과 미행, 회유는 물론 때에 따라 야학에 참여한 강회들이 경찰에 연행돼 조사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야학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탄압이 이뤄지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임 씨는 “5.18민주운동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윤상원과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그리고 야학 인근 주민들이 있어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었다”며 “야학 탄압을 이겨내며 갖춘 조직성이 있어 5.18민주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임 씨는 “들불야학은 5.18민주운동에서 흥보선전대 역할을 했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투사회보를 들었다. 투사회보는 윤상원 열사와 들불야학 성원들이 마비된 언론을 대신해 제작한 신문이다. 그는 “윤상원은 민주화운동이 지속될 것이며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명칭을 ‘회보’로 지었다”며 “시민들에게 민주화운동 현장을 알려 조직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투사회보를 간행해 배포했다”고 말했다.

“

야학에서 노동자들은 정치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조보적인 내용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노동자와 처한 열악한 노동 현장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야말로 야학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탄압이 이뤄지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임 씨는 “5.18민주운동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박관현, 그리고 야학 인근 주민들이 있어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었다”며 “야학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대체로 협력해온 편이었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임 씨는 “아학도 학생 운동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당시 아학 활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들로 아학 활동을 통해 정치사회적 개혁 과정은 민중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이어 임 씨는 “들불야학은 5.18민주운동에서 흥보선전대 역할을 했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투사회보를 들었다. 투사회보는 윤상원 열사와 들불야학 성원들이 마비된 언론을 대신해 제작한 신문이다. 그는 “윤상원은 민주화운동이 지속될 것이며 지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명칭을 ‘회보’로 지었다”며 “시민들에게 민주화운동 현장을 알려 조직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투사회보를 간행해 배포했다”고 말했다.

또 수천 장을 인쇄하기 위해 밤을 새우기 일쑤였고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아 물자를 조달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문을 두드려 문을 두드려 문을 닫은 대자보를 붙였다”며 “집회 현장에 호소문이나 격언문, 선언문 등의 유인물을 간행해 살포했는데 이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야학에 대한 탄압을 극복하며 갖춘 조직성이 빛을 발한 결과였다.

마지막으로 임 씨는 온갖 탄압에 시달렸던 시간을 다시금 회상하며 “야학이나 유인물 간행, 투사회보 제작과 배포는 민주화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씨는 “온갖 탄압에 시달렸던 시간을 다시금 회상하며 “야학이나 유인물 간행, 투사회보 제작과 배포는 민주화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리나 어두운 시대를 반드시 돌파하기 위해 우리가 이 일을 해야만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서술 펴렸던 시대 속 청년들의 이야기를 맺었다.

마지막으로 임 씨는 온갖 탄압에 시달렸던 시간을 다시금 회상하며 “야학이나 유인물 간행, 투사회보 제작과 배포는 민주화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씨는 온갖 탄압에 시달렸던 시간을 다시금 회상하며 “야학이나 유인물 간행, 투사회보 제작과 배포는 민주화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씨는 온갖 탄압에 시달렸던 시간을 다시금 회상하며 “야학이나 유인물 간행, 투사회보 제작과 배포는 민주화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리나 어두운 시대를 반드시 돌파하기 위해 우리가 이 일을 해야만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서술 펴렸던 시대 속 청년들의 이야기를 맺었다.

마지막으로 임 씨는 온갖 탄압에 시달렸던 시간을 다시금 회상하며 “야학이나 유인물 간행, 투사회보 제작과 배포는 민주화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씨는 온갖 탄압에 시달렸던 시간을 다시금 회상하며 “야학이나 유인물 간행, 투사회보 제작과 배포는 민주화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씨는 온갖 탄압에 시달렸던 시간을 다시금 회상하며 “야학이나 유인물 간행, 투사회보 제작과 배포는 민주화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리나 어두운 시대를 반드시 돌파하기 위해 우리가 이 일을 해야만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서술 펴렸던 시대 속 청년들의 이야기를 맺었다.

마지막으로 임 씨는 온갖 탄압에 시달렸던 시간을 다시금 회상하며 “야학이나 유인물 간행, 투사회보 제작과 배포는 민주화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씨는 온갖 탄압에 시달렸던 시간을 다시금 회상하며 “야학이나 유인물 간행, 투사회보 제작과 배포는 민주화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씨는 온갖 탄압에 시달렸던 시간을 다시금 회상하며 “야학이나 유인물 간행, 투사회보 제작과 배포는 민주화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리나 어두운 시대를 반드시 돌파하기 위해 우리가 이 일을 해야만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서술 펴렸던 시대 속 청년들의 이야기를 맺었다.

마지막으로 임 씨는 온갖 탄압에 시달렸던 시간을 다시금 회상하며 “야학이나 유인물 간행, 투사회보 제작과 배포는 민주화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씨는 온갖 탄압에 시달렸던 시간을 다시금 회상하며 “야학이나 유인물 간행, 투사회보 제작과 배포는